



한국고분자학회
31대 회장 허수영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학회를 아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회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학회 총회에서 금년도 신임 학회회장으로서 인준을 받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허수영입니다.

먼저 한국 공학 및 과학계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고분자학회를 1년간이나마 담당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산업계 출신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익숙하지 않은 학회를 운영함에 걱정도 또한 앞섭니다. 먼저, 지난해 학회를 성공리에 이끌어 오신 전임 이두성 회장님, 윤호규 전무이사님, 자문위원님들, 부회장님들 그리고 운영이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76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는 그 동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학회발전과 후진 양성은 물론이고 한국 고분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학회는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약 4,800여 명의 회원과 연 2,200여 편 이상의 학술회의 발표논문 수로 양적인 면은 물론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굴지의 고분자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고분자산업은 우리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과 의류를 생산하는 중요 대체소재생산 산업이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공학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등의 첨단산업기술의 핵심 소재로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와의 융합/복합기술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혁신 소재로서의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한류 문화가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체육계에서도 후진국형인 권투, 레슬링 등은 쇠퇴하고 있지만 소위 고급 스포츠라고 하는 수영, 스케이트, 리듬체조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 산업분야들도 세계굴지의 산업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통신 기술은 물론이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서도 우리는 1위의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함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투자와 우리 국민의 근면, 성실, 열정 그리고 경쟁정신이 그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우리 학계의 후진양성 교육과 연구에 대한 기여가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 60대 기업의 CEO 중에서 49%가 이공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람과 조직과 사회관계를 관리하는 경영보다는 기술경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나라의 범용석유화학산업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이미 일본을 능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석유화학의 원천기술 면에서 또는 정밀화학, Life Science, 첨단 신소재 분야에서도 과연 그러하냐고 할 때는 아직은 고개가 가우뚱 해집니다. 또한, 우리의 주요 수출국으로 20여 년간 역할을 해왔던 중국은 범용석유화학산업 면에서 엄청난 신증설과, 대규모의 잘 구축된 석유화학단지, 대규모 단위공장, 신공정 도입 등으로 우리를 바짝 쫓아왔거나 이미 능가하였습니다. 즉 한국은 선진

국들의 기술 장벽과 중국의 대규모 물량공세 사이에 끼어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글로벌 마켓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쟁을 헤쳐 나가야 할 생존전략으로서 창조적 혁신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리더의 양성과 기술력 향상에 있어서 우리 학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2014년은 출범한 새 정부가 제시한 미래창조과학정책에 발맞추어 서 본 학회도 그에 합당한 기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임기 중 하고자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학회가 국내에서도 선도적이고 좀 더 글로벌화하기 위하여 춘/추계 학술대회에서의 영어세션을 확충하여 해외 고분자관련 연구자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웹사이트의 영문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적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 우리 학회는 학/연/산이 연구정보와 인력을 교류하는 장으로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회원에게 빠른 정보 전달을 통한 서비스를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 증대를 위해 분과회 및 지부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학회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2년 후인 2016년이 되면 우리 학회의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회 자문위원, 회장단, 운영이사진과 협의하여 올해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기존에 구축된 대만, 일본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에 더하여 아시아권역과 세계의 관련 학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5. 학술적으로는 저명한 국제 학술회의 유치와 학회지의 국제 영향력 확대(학회 영문지 및 국문지 인용 지수 향상 등)를 위한 노력을 하여 학회 및 학회지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희대 김정안 교수님이 수석부회장을 맡으시고, 고려대 안동준 교수가 학회전문이사로서 학회의 실질적인 살림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김진곤, 김철희, 노기수, 조재영, 최창현 부회장님들과 26분의 운영이사진께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의 한국고분자학회의 회장으로 중차대한 업무를 이어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회원과 학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찬 새해에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허수영**